

造景士

summer 2016 No.101



(사) 한국조경사회
Kore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01 인사말	03
- 김태경	
02 특집 : 해외답사 견문록	04
- 첼시 플라워쇼를 다녀와서/홍광표	
- 생태문화의 정수, 쇼몽국제정원박람회/박미옥	
- 안탈리아에는 무궁화가 피었다/박 훈	
03 고정코너	16
- 사진 한 장에 담긴 정원이야기/김인수	
- 우리 시대의 생태시 읽기/진승범	
- 조경관련 법규Q&A/김철홍	
04 Q&A코너	20
-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05 본회소식	23
- 2016 신기술 신자재 세미나	
- 2016 조경시공사례지답사	
- 제5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동탄2신도시 근린공원 7호 공공정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2016 사목회	
06 지회소식	26
- 부산시회	
- 울산시회	
- 대구경북시도회	
07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28
- 공지사항	
- 회원동정	
- 회비 내역 및 협찬 현황	
08 편집후기	31
09 기업회원사	32

인사말



김태경 /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는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거세게 겁박을 해와도 좀처럼 떨리거나 불안감이 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생겼다. '위기'라는 말..... 경제위기, 국방위기, 그리고 요즘 추가된 환경위기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은 매체들에 의해 내가 무디어진 것이지 위기가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로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위기 가운데 국가가 없어지는 위기만큼 큰 것이 있을까? 1200년 이상의 시간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야만인으로 보였던 게르만에 밀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민족 대이동으로 배웠던 그 황당?사건 때문에 말이다. 그런데 군사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로마가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했을까? 음식 점 폐업은 신고를 하는 순간에 결정되므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더욱 뿌리깊고 다양할 것이다. 하물며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45만번 가량의 해돋이와 해넘이를 보아왔던 로마인들 그리고 그들의 국가는 어땠겠는가? 두창이나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귀족들, 작동하지 않았던 경제, 종교갈등 그리고 게르만 등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침입 등 이것을 주제로 하는 논문만으로도 수 많은 학위를 배출했을 정도이다. 많은 연구자들 만큼이나 다양한 원인을 가졌던 멸망의 원인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황제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과 국민들의 위기인식이다.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 4명의 황제는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였거나 폭정을 일삼았고, 이후의 8대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전제정치로 암살을 당한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위기로 보낸 로마는 9대 황제로 네르바를 선택한다. 전제정치를 종식시킨 그를 시작으로 유럽의 대부분을 로마세계로 만들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트라야누스, 자신의 이름으로 국경을 탄탄히 방벽화함으로써 로마의 영토를 공고히 했던 하드리아누스, 영토는 전임황제 때보다 조금 넓어졌으며 후세에 태평성대라는 찬사를 받았던 안토니누스 피우스, 철학을 하며 국민을 위해 수 많은 법을 만들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는 이 시기를 '오현제 시대'라고 한다.

한 검투사의 비극적 삶을 충실한 고증에 따라 영화화하여

많은 관객을 모았던 '글래디에이터'는 그 철인황제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아들 콤모두스에 의해 살해되는 구성은 잘못된 고증이거나 영화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감독의 상상력이라고 보이나 그의 행적은 상당부분 들어맞는 사실이다. 아우렐리우스의 죽음으로 황제자리를 넘겨받은 콤모두스의 황포는 오현제 시대가 끝났음은 물론이거니와 로마라는 세계가 기울어지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평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지도급 원로원 의원들의 처형, 군대를 무마하기 위해 자행한 총리 처형, 군중들에 의한 그 후임자의 살해방치, 로마의 이름을 콜로니아콤모디아나(콤모두스의 땅)로 바꾸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검투사처럼 싸우거나 활로 사자를 죽이기도 했다. 마침내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고, 고문관들은 그를 살해함으로써 로마는 곧 내란상태에 빠지게 된다. 밖으로는 게르만이라는 적을 뭉치게 만들었고 안으로는 내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로마의 멸망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콤모두스 이후의 어떤 황제도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부터 로마인들의 위기감 지기능은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퇴화된 기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세상인 조경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0년을 정점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게르만족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은 흉노족이라고도 불리웠던 훈족의 침입이었다. 산림, 토목, 건축, 관광 한걸음 더 나아가면 미술 분야에서도 위기의 시대를 맞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틀림없고 가까운 영토인 우리의 세상을 침범하려 기회만 엿보고 있다. 자신의 생존이라는 미명으로..... 오현제 시대는 위기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는 현재의 준비에서 비롯되었다. 미래의 적에 대한 대비, 자기세계에 대한 탄탄한 영역확보, 국민들과 하나가 되는 제도구축 등 모든 것이 '나'가 아니라 '우리', '황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들이었다. 외환위기로 건설경기가 대폭 위축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위기로 인식이나 했었는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했었던가? 혹시 콤모두스와 같이 '나'를 중심에 놓고 콜로니아콤모디아나를 만드는데만 열중했거나 사자사냥에 몰두한 나머지 위기감지기능이 정지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유는 없지만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어렵게 조경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조경의 진흥을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낸 조경지원센터는 우리에게 남겨진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어찌 위기를 인지하는 기능을 꺼놓은 채 팔장을 끼고 무관심하게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로마인은 멸종했고 로마는 껍데기만 남아 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오현제를 선사할 수는 없더라도 콤모두스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특집 : 해외답사 견문록

Part1 | 첼시 플라워 쇼를 다녀와서 / 홍광표 /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Part2 | 생태문화의 정수, 소몽국제정원박람회 / 박미옥 / 나사렛대학교 교수

Part3 | 안탈리아에는 무궁화가 피었다 / 박 훈 / 순천시청 정원산업과 계장

2011년 첼시플라워쇼에서 황지해 작가의 '해우소' 수상 소식을 시작으로 유럽의 다양한 정원관련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조경계에서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가든 페스티벌,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에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접하게 된다.

휴가철이 다가오는 여름호를 맞이하여 유럽이라는 먼 땅에 직접 다녀와서 조경인의 시선으로 바로보고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 해줄 이들을 초대하였다. 기존 매체들에서 다루었던 나열식의 작품소개와 한국인 작가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 보다 박람회장의 전반적인 조성/전시/운영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작품 경향 등을 포함하여 향후 방문을 하게될 다른 조경인들을 위한 여행 팁 등 자유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Part1 |

첼시 플라워 쇼를 다녀와서



전시부스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첼시 플라워 쇼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1년 황지해의 '해우소 가는 길'이 아티잔artisan 부문에서 골드메달을 따면서 부터이다. 황지해?, 첼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첼시 플라워 쇼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원과 정원관련 상품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황지해는 우리들에게 더 생소한 이름이었다.

황지해가 뭘 하는 사람이지? 어느 대학 조경과를 나왔는데? 조경분야에서 오래 몸담아 온 사람이라면 대체로 이 분야에

서 일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대강은 알고 있는데, 황지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알고 보니 황지해는 조경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미술과를 나온 사람이었다. 미술과를 졸업한 이가 어떻게 정원디자인을?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일은 황지해가 2012년 첼시 플라워 쇼에 출품한 '침묵의 시간: 금지된 정원 비무장지대Quiet Time: DMZ Forbidden Garden'로 쇼가든 부문에서 다시 골드메달을 수상한 것이었다. DMZ를 주제로 정원을? 이제 황지해를 모르는 조경가는 없게 되었다. 그렇게 첼시 플라워 쇼는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첼시 플라워 쇼 전시공간 전체배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

첼시 플라워 쇼는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원박람회이다. 1913년 1회대회가 열렸으니 올해로 103년이나 된 박람회이다. 더구나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바로 왕립원예협회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이고 보면 첼시 플라워 쇼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플라워 쇼라는 이름으로 인해 이 박람회가 꽃을 전시하는 화훼박람회쯤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첼시 플라워 쇼는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행사로서, 단순히 꽃을 전시하는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더구나 이 첼시 플라워 쇼에서는 쇼가든 부문과 아티젠 부문 그리고 후레쉬가든 부문에 다양한 나라의 정원 디자이너들이 정원작품을 출품하게 되며, 이 작품들은 전시 후 심사를 통해 골드Gold 메달, 실버길트Silver Guilt 메달, 실버 Silver 메달을 수상하게 된다.

첼시 플라워 쇼는 한마디로 문화Culture를 보여주는 행사

Show이다. 황지해의 정원이 골드메달을 수상한 것도 역시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얘기해온 것이지만, 정원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구어낸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다. 첼시 플라워 쇼는 바로 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원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에 주목하는 하나의 축제이다.

물론 첼시 플라워 쇼에서 주목하는 문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폭력이나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 이슈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 첼시 플라워 쇼가 프랑스의 쇼몽 가든 페스티벌Chaumont Garden Festival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즉, 쇼몽 가든 페스티벌은 실험적인 정원을 전시해서 그러한 정원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정원의 경향을 선도하는 유행을 만들어 내는 장이라면, 첼시 플라워 쇼는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정원으로 되살리는 문화적 체험의 장이라는 것이다.



The LG Smart Garden_황혜정 작가의 쇼가든 출품작



The Telegraph Garden_쇼가든 베스트



The Marble and Granite Centre_후레쉬가든 베스트

올해 첼시 플라워 쇼에 출품된 작품들 역시 세계 여러 곳에서 꽃 피운 문화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올해 쇼가든 부문에는 모두 17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6개의 골드메달과 8개의 실버길트메달 그리고 3개의 실버메달이 수상되었으며, 아티젠가든 부문에는 6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후레쉬가든 부문에는 7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쇼가든 부문에서 베스트 가든으로 선정된 The Telegraph Garden은 영국의 조경설계가 Andy Sturgeon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지구의 풍경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야생의 환경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정원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청동으로 만든 꼬리는 고대의 산맥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협곡의 눈 녹은 물을 보여준다. 여기에 도입된 식물은 캘리포

니아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산맥의 수풀과 칠레 안데스 Andes 산맥의 마토랄Mattoral(지중해성 환경이나 식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티젠가든 부문에서 베스트 가든으로 뽑힌 Viking Cruises Mekong Garden은 영국 조경가 Sarah Eberle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메콩강과 캄보디아에서 볼 수 있는 물 위에 떠있는 정원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후레쉬가든 부문의 베스트 가든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Martin Cook과 Gary Breeze의 작품인 The Marble and Granite Centre-Antithesis of Sarcophagi가 선정되었다. 이 정원은 거대한 화강암 안에 만들어졌는데, 이 것은 안과 밖이 뒤 바뀐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Viking Cruises Mekong Garden_아티젠가든 부문 베스트



장화를 전시한 부스

첼시 플라워 쇼는 1988년부터 입장객을 16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람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입장개시 시간인 오전 8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에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입장과 동시에 정원작품이 전시되는 메인 애버뉴, 아티젠 에어리어, 후레쉬 웨이와 정원상품이 주로 전시되는 이스턴 애버뉴 그리고 첼시 플라워 쇼의 심장인 그레이트 파빌리온 구석구석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관람객들로 꽉 들어찬다. 이런 인파야말로 첼시 플라워 쇼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증거하는 것이리라!

첼시 플라워 쇼는 단순히 정원을 전시하고 정원상품을 전시하고, 꽃을 전시하는 단순한 개념의 박람회장이 아니다. 첼시 플라워쇼가 열리는 5일간 이곳 박람회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충실하게 서비스를 한

다. 뮤직 프로그램, 카니발 프로그램, 미래를 위한 정원교육, 화훼장식 스튜디오 등을 비롯해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정녕 정원문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문화와 예술로써의 정원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있고, 어떻게 살아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첼시 플라워 쇼는 무려 18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정원의 축제는 감미롭고 향기롭다. 첼시 플라워 쇼를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정원 박람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분간해본다.

올해 첼시 플라워 쇼에는 우리나라 황혜정 작가가 출품한 The LG Smart Garden이 실버길드상을 수상하였다. 황지혜 작가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



쇼몽성 전경

Part2 |

생태문화의 정수, 쇼몽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festival of Chaumont sur Loire



박미옥 / 나사렛대학교 교수

‘Gardens for the coming century (Jardin du siècle à venir)
다가올 세기의 정원.

쇼몽 2016의 주제이다.

정원은 인류문화의 정수이며 6차 산업이다. 정원은 곧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문화적 현상이며 그곳에는 생태와 예술과 사상과 종교와 역사와 풍토와 그리고 사람의 삶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정원문화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와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역사를 통해 반복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쇼몽은 이들을 아우르는 정원문화의 집약체로서 생태적 사상과 문화적 현상이 혼합된 생태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쇼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원문화 현상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쇼몽은 중세의 고성 쇼몽성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전시된다. 쇼몽 초기에는 개최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4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되었고 2016년의 경우 4월 21일부터 11월2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구글영상으로 본 쇼몽. 뒷부분 흰색 원이 쇼몽성, 왼쪽 가운데 흰색 원 부분이 공모전 작품 전시장, 가운데 건물 밀집 지역이 마굿간과 농장, 오른쪽은 historic ground, 왼쪽 아래 Gouloup 정원의 흰색 타원 부분에 한국정원 설치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쇼몽 국제 가든페스티벌은 쇼몽만의 특별함이 있다. 전시 공간은 쇼몽성, 마굿간, Historic Grounds, Gouloup 정원, 농장마당Farm Courtyard 등으로 구분된다. 박람회로는 정원박람회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쇼몽에는 상설전시장과 더불어 해마다 주제에 따라 공모전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전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외에도 쇼몽의 역사적 흔적을 전시한 Historic Grounds, 쇼몽성과 마굿간 등에서 상설 전시되는 작품들이 쇼몽의 특별함을 구성하고 있다.

박람회는 크게 해마다 공모전으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상설전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간에 분산되어 전시되고 있다. 정규 정원박람회는 공모전 공간과 Gouloup 정원 및 Farm Courtyard에서 전시된다. 동시대적 트렌드를 집약한 Arts & Nature 프로그램은 쇼몽성, Historic Grounds, 마굿간, Gouloup, Farm Courtyard 등에서 상설 전시된다.

해마다 특별하게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으로서 Visual Arts, Photography, Nocturnal Events, 특별한 작은 정원박람회인 Cartes Vertes (Green Lights), Autumn Splendours, Winter Gardens 등도 쇼몽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다.

1992년 시작된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은 해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원작품 20여 작품을 전시한다. 2016년의 주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가올 세기의 정원Gardens for the coming century'으로서 쇼몽을 통해 정원문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새로운 트렌드를 집약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2015년의 주제는 '진귀한 정원, 수집가의 정원Extraordinary gardens, collectors' gardens' 으로서 진귀한 것만을 모으는 수집가들이 쇼몽을 통해 진귀한 정원을 모아 전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쇼몽의 개최지인 쇼몽성Château de Chaumont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 남서쪽 르와르강가에 위치한 중세 고성으로서 10세기에 건립되어 한때 폐허 직전까지 쇠퇴되었으나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정원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쇼몽성은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방, 르네상스 시대의 타피스트리, 앙리2세의 두 연인의 침실 등 16세기 역사의 한 단면을 담고 있으며, 1814년 3월 나폴레옹1세를 제압한 승전국들의 쇼몽조약Treaty of Chaumont, 1차세계대전 미군 총사령부 등의 근대 역사의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쇼몽성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만으로도 가든페스티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쇼몽박람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원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창의력 있는 정원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박람회 전시장은 해마다 주제를 부여하여 전 세계 조경가, 화훼장식가, 건축가, 조각가 등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약 25명 내외의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며, 작가들은 단독으로 또는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하여 아주 간단한 형태로부터 초현대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에게 매년 새롭고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쇼몽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사막화 그리고 탄소저감을 얘기하며 에너지 위기를 경고한다.



쇼몽정원 박람회장 입구



정원은 과학의 산실 (Frankenstein nature, 2016)



지구온난화와 사막화에 대비한 무한정 노력으로 지구의 미래를 바꿈_LE LIÈVRE ET L'ARBRE A PALABRES, 2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및 저장_Carbon pool, 2015

쇼몽은 과학적 현상과 오감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법칙을 설명하며 복잡한 인간의 삶과 독특한 생태적 현상을 말하고 있다. 작게는 습지나 비오톱에서 크게는 지구생태계에 이르기 까지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의 삶과 더불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쇼몽은 인구증가와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도시에서 단편화된 패치의 연속성과 순환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재생을 통한 생태계와 인간성의 회복을 선언한다. 야생과 잘 관리된 자연의 어울림을 추구한다.

옥상비오톱이 도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며 수직 정원은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기반을 창출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아마존의 거대한 가시연꽃과 이탄습지의 포식자 벌레잡이 식물까지 생물다양성을 설명한다. 안과 밖의 경계는 모호하고 일체화되며 공간은 구조물을 담는다.

쇼몽은 자연의 법칙과 환경에 순응한 생존과 생물다양성의 증진, 풍요로운 먹거리와 식탁 위의 아름다움과 농업기술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정원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식물의 천연색상이 만드는 색채 레시피를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염색정원이다.

쇼몽에서는 식물 표본들로 가득 찬 식물도서관을 찾을 수 있으며, 희귀식물로 가득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자신을 성찰한다. 마치 앙리루소의 그림처럼 열대우림으로 채워진 적도의 이국적인 야생정원 혹은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를 연출한다.

쇼몽에는 동양3국의 정원문화를 한국 전통정원의 전형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는 화계, 연못(방지), 섬(원도) 등 3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한국정원이 있는가 하면, 고산수 양식의 평면계획에 물요소를 도입하여 거울을 연출하고 현대 일본 정원요소를 결합하여 일본영도를 표현한 일본 정원도 있다.

전통 중국 자연경관 미니어처에 레인가든 원리를 적용하여 현대적인 빗물처리 개념을 중국 정원 철학과 융복합하여 인간과 자연, 곡선과 사각형, 위요공간의 공간체험, 작은 것을 큰 것에 융화, 땅을 깎거나 채워 지형 변화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정원

에 선비, 시인, 사대부 등에 의해 담으로 위요되고 연못과 석가산, 나무, 꽃, 바람길에 연결된 정자 등을 담아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일련의 풍경을 통해 자연을 축소 모방한 인공자연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기후, 풍토, 역사성 등 지역의 고유한 속성을 지닌 지기가 흐르는 장소성Genius loci을 추구하여, 과거 전통의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를 반영하면서 지기의 외면적, 형식적 측면과 더불어 내면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정원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쇼몽은 기쁨을 노래하며, 위기 속의 상상력, 기술의 시적 현상과 물, 에로티시즘, 혼돈과 질서, 기억과 놀이, 기쁨과 감각, 죽음과 원죄, 도시농업과 색채와 생물다양성의 예술 등을 담고 있다.

쇼몽의 작품은 말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미래에는 어쩌면 고래의 뱃속이나 보이지 않는 섬 또는 음악의 산에서 살 수도 있고, 꿈꾸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과 공생공존하고 자연은 도시와 어우러진다. 종교적 믿음과 전설, 그리스로마 신화 속 세계는 현실이 되고, 한낱 가설은 어느새 법칙이 된다.

프랑스 정원문화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예술사조의 흐름 속에서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최고의 정원문화를 이룩한 인물로 평가되는 르노트르, 루이15세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던 잔느 앙투아네트 푸아송(Jeanne - Antoinette Poisson, 로코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리 앙투아네트 Marie Antoinette) 등의 인물을 통해 정원문화가 절정에 이르러 평면기하학적 정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보르비공트와 베르사유 궁전, 폰텐블루 성 등 프랑스 바로크에서 로코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발전하는 예술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또다른 하나의 축으로는 자연주의의 배경이 된 바르비종파 인상파, 후기 인상파 등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낳게 한 배경이 되었던 지베르니, 바르비종, 오베르쉬르와즈 등의 자연과 밀레의 집, 모네정원, 고흐의 말년 거주지와 시슬리의 집 등 당대 예술적 흐름을 이끌었던 이들의 삶의 흔적과 작품 속에서 또다른 정원문화가 탄생하였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의 문화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선두에 소용이 있고, 그곳에는 생태와 예술과 사상과 종교와 역사와 풍토와 그리고 사람의 삶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내일의 정원은 곧 다가올 미래의 유토피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경을 중심으로 화훼장식, 원예, 건축, 산림,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정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적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의 정원문화와는 또다른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닌 고유한 정원문화가 정립되며 모방과 창조를 통해 소용이나 첼시의 정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정원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와 더불어 문화현상과 생태자원으로서의 정원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하며, 우리 고유의 정원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혼돈의 끝, 물과 땅의 경계에서 야생과 공존하는 문명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재생과 공존을 위해 도시와 사막 위를 떠다니는 오아시스



기후변화 시대, 습지의 수용능력 속 비오톱정원과 트위스트 곡선의 모듈 아키텍처는 우주선 지구호의 인류의 생존이며 실험



극도의 도시화로 소멸된 도시생태계를 회복하는 노력은 도시인의 권리이며 보편적 생태복지의 수단이다.



순천만 연안습지 S자 곡선 디자인

Part3 |

안탈리아에는 무궁화가 피었다



박 훈 / 순천시청 정원산업과 계장

Expo 2016 Antalya의 주제는 꽃과 어린이로 엑스포 정문 앞 터키 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1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으며,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면 100.7M의 팜트리를 형상화한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엑스포에 여러 테마의 정원들이 있으나 한국정원을 조성하며 체험 하였던 터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감을 정리하고 일부 정원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우선 순천시가 한국정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당시 터키정부에서 박람회 부지에 터키정원 조성과 관람객에게 이벤트 행사로 터키여행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개최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도 있었지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농림식품부와 산림청에 순천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16안탈리아 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정원 입구인 전축문



한국정원의 상징물 종각

한국정원의 디자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정원을 조성한 서안알앤디(대표 신현돈)에서 순천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디자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징 고유 건축물과 병합한 종각과 우리나라가 지형과 순천만 연안습지 형상을 고려한 S자 곡선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아직 겨울을 채 벗어나지 못한 안탈리아의 2월 말 정원의 경계를 확인하고 4월 23일 마감을 목표로 하여 첫 삽을 뜨고 기초 작업에 돌입하였는데, 엑스포 조성지가 습지대를 개간하여 조성된 지형이어서 1미터를 파기도 전에 빨과 같은 진흙이 있어 우려를 하였는데, 유난히 자주 내렸던 올 봄 비로 인하여 2~3일에 한번은 양수기를 돌려야 했다.

계획대로라면,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한국에서 급하게 만들어 선적한 자재들이 30~35일(3월 중순)만에 도착하여야 하였으나, 중국의 춘절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한 2편의 배가 2주 가량 늦어졌고, 뿐만 아니라 엑스포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특별 통관절차를 통해 컨테이너 도착 후 4시간이면 된다고 하던 통관이 주말과 겹치면서 4일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며 작업자들과 기다렸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타국에서의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다.

목공, 석공, 와공, 단청 팀들의 협력과 노고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터키 현지인 조공 및 일용직 노무자들을 데리고 단 10일 만에 전축문, 종탑, 2개의 협문과 150M 전통 담장을 완공하여 현재의 한국정원이 탄생 할 수 있었다.

2015년 8월에 1차 현지 방문하여 교목, 관목 및 초화류를 검토 한 후 설계를 하였으나, 일부 수종들은 안탈리아의 날씨에 적합하지 않고, 주변 나무농장들은 엑스포에 많은 나무들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좋은 식재들을 찾을 수 없어, 1,000km가 넘는 곳을 달려가 소나무를 구하고, 안탈리아의 모든 농원을 발로 뛰어 원안 설계에 부합되는 초화류를 골라 시공한 생각을 떠올리면, 아직도 발에 땀이 나는 것 같다.

D-Day 2일 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물청소를 하며 보았던 파란 하늘이 어찌나 청명하고 시원해 보이던지, 마치 터키는 낯선 땅에서의 노고를 단숨에 날려 보내주었던 것 같았다.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셨지만 현지 교민회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하신 안탈리아 교민회 회장 육근형 사장님께 특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땀과 희로애락이 묻어 있는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을 관람하였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게 구한 소나무



엑스포 컨벤션 센터



엑스포 어린이 동경원

이제 Expo 2016 Antalya로의 여행을 떠나볼까?

Expo 정원은 크게 4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컨벤션센터 및 Expo 조직위 사무실등 주요 행사 및 정원 전체 관리하는 곳이며, 둘째 어린이 동 공원(어린이 섬) - 어린이들이 농장 체험 및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곳, 셋째 수경 공간과 터키 지역별 식당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정원이 위치하고 있다.

세계정원 23 곳 중 눈 여겨 볼 장소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 하는 장안을 모티브로 정원을 만들어 넣은 중국과 식물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는 독일 정원을 추천하며, 또한 터키 지역별 정원은 지역별 특색과 문화, 음식 등을 잘 설명하고 있어 터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나먼 이국에 와서 엑스포만 보고 가시기에 아쉬운 분들을 위하여 안탈리아에서 가볼 만한 곳 몇 군데 추천한다. 안탈리아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

는 칼레이치와 항구를 둘러 보시길 추천 하며, 오스만 제국 시절에 지어진 고택과 좁은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찻집, 먹거리를 구경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 같다.

다음은 페르게 고대 도시와 아스펜도스 - 엑스포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페르게 고대 도시로 기둥과 수로를 복원하여 세워 놓은 길을 걷노라면 고대의 건축가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감동을 담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실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스펜도스를 가보자. 해가진 공연장에 불이 켜지고 공연이 시작 되면, 음향 장치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낄 것이고 공연이 무르익으면 마치 로마시대의 한 시민이 된 양 분위기에 녹아 있을 것이다.

지중해를 품은 안탈리아에 오셔서 엑스포도 즐기시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에 점 하나 찍고 가시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



안탈리아 구시가지



세계정원구역에 있는 터키 오스만정원



페르게 유적



안탈리아 선착장



대전 오월드

실내에는 에어컨, 실외냉방에는
Cooling Fog System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Cooling Fog System



아산생태공원

Cooling Fog System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Cooling Fog System

야외냉방시스템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고압펌프와 세밀한 노즐을 이용한 **COOLING** 시스템은 전기와 물이 있는 야외 및 어느 현장에서든 사용가능하며 무더운 여름철, 먼지 많은 작업장과 황사를 대비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대응 냉방시스템입니다. 안개의 입자가 **10-30**미크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적시지 않는 미세한 안개 **SEMI DRY FOG**를 공기 중에 분무해 안개가 증발할 때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효과를 이용한 옥외 냉방입니다.

cooling 특징

- 고객 서비스 향상(시원함-릴렉스)의 야외 냉방
- 비산먼지 제거 등의 분진 제거
- 옥외나 대공간을 간단하게 냉방할 수 있는 시스템(젖지않게 하는 미세한 **SEMI DRY FOG**사용)
- 안개가 공기 중에서 증발할 때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성질을 이용(열섬 현상 완화)
- 대형 시설에도 하루 단 **1,530**원 전 후로 야외 냉방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저비용 실현

사진 한 장에 담긴 정원 이야기



김인수 (사)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연구소 소장 /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대표



웨어리쨌 정원의 제국 Wörlitzer Gartenreich / 독일Germany 데싸우Dessau

웨어리쨌 정원의 제국은 독일의 대표적인 풍경식 정원이다. 풍경식 정원은 대지라는 자연의 캔버스에 경치를 그리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미술사가 고프리히는 아름다운 풍경식 정원 안에는 화가의 서명이 들어갈 만 하다고 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Rousseau는 자연의 순수한 상태를 이상향으로 동경하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기를 주장했다. 자아를 찾는 원천이 자연이고, 자연에 기초한 삶의 기본모델이 정원이라고 정의하면서 그에게서 풍경식 정원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 1764년 안할트 데싸우의 선제후 레오폴드 3세 후리드리히 후란츠Fürst Leopold III. Friedrich Franz von Anhalt Dessau / 1740-1817는 첫 번째 영국여행을 떠나게 된다. 스투우Stowe 정원과 스투어헤드Stourhead 정원 등 방문을 통해 당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자유주의와 반전제주의의 유형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정원의 제국' 조성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철학적 원칙을 조형적, 교육적, 경제적 개념으로 조경설계에 적용한 매우 우수한 사례이다. 선제후 후란츠는 단순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보다는 그의 영토를 근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체 120hr의 대지중 80hr가 주변 엘베강의 범람에 대비하는 호수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의 몇 차례 계속되는 영국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던 건축가 후리드리히뵐헬름

후라이헤르 폰 에르드만스도르프Friedrich Wilhelm Freiherr von Erdmannsdorff와 왕실조경가 요한 후리드리히 아이저벡Johann Friedrich Eysenbeck이 정원조성에 참여해 1765년 팔라디오양식의 빌라 건축을 시작으로, 고딕하우스, 인공운하 등이 건설되고 1798년Floratemple이 마지막으로 조성되면서 정원은 완성된다. 특히 1782년 선제후 후란츠가 정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루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중앙에 유골함이 있고 원형으로 미루나무가 심겨진 루소의 섬을 프랑스의 에르므농빌Ermenonville 풍경식 정원을 복제하여 조성한다. 에르므농빌 정원은 루소의 영향을 받아 숲과 호수 등 자연의 풍경으로 조성되었는데 그가 마지막 생애 6주를 보내고 원형의 미루나무 섬에 영면하였다.

정원의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산책자 여러분,
자연과 예술을 유의하시고
그들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세요.“

데싸우의 웨어리쨌 정원은 숨이 멎을 듯 끝이 없는 아름다운 볼거리로 가득한 자연의 제국이다. 🌳

우리 시대의 생태시生態詩 읽기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황사는 공습중이다

-삼겹살을 구우며

대 공습이다

신중 황사먼지를 휴대한 정체 모를 테러범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차별 도시를 폭파하고 있다
뽀글거리는 벚꽃들

독한 파마약 냄새 날리며 울음이 뿔뿔하고 있다

가로수마다 폭발물 파편처럼 쏟아진다

한바탕 뒷골목 패싸움이라도 벌였는가

건물마다 비상벨이 울리고

콧구멍 벌렁거리며 5분대기조 출동을 한다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

화약내 진동이다

상량식 때 몸값 톡톡히 챙긴 먹성 좋은 조상까지

끝없이 껍뻍 몰아 부치는,

드디어 승전보가 타전 되고

막창 터지도록 맹렬히 전사한 목숨들이 지글지글

꽃대를 태우고 있다

하늘이 뽕 뿔렀다

한영숙(1961~)

자연도태自然淘汰되는 패자들? 간단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기원이 '수렴이론收斂理論'이다. 수렴이론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절충에 대한 명명이다. 누진세累進稅, 오래된 장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래된 슬로건slogan이다. 사회적시스템에 의한 이타적利他的 행위의 세목들이다.

이타적 행위는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차원을 뛰어넘기도 한다. 대륙을 넘나든다. 이를테면 인류를 위해, 보다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존Amazon을 개간한다. 쇠고기도 식량인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자란다. 나무가 걸림돌이므로 나무를 베다. 소들을 위해-정확히 말하면 인류를 위해- 나무를, 숲을, 내준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내주게 될까?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Beyond Beef>에서 말하는 경고 : 소들이 풀뿌리까지 뜯어먹으면, 사막화가 앞당겨 진행되면, 타클라마칸사막Taklimakan Desert, 고비사막Gobi Desert들이 넓어지면, 지구는 그 다음엔 무엇을 내주게 될까? 제레미 리프킨의 경고를 좀더 들어보자.

'절망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량 곡물에서 사료 곡물로의 전환은 역전될 기미가 전혀 없는 채 여러 나라들에서 사료 곡물 생산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전환이 인간에게 미친 결과는 1984년 날마다 수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어 가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바로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일부 경작지를 아마인 깻묵, 목화씨 깻묵, 평지씨 깻묵을 생산하는데 할애했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작물들은 가축사료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목적이었다. 현재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제 3세계 토지가 오로지 유럽의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숲의 사막화, 초원의 사막화는 '육식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숲을 내준 대표적 대가로 '황사(바람)'를 꼽을 수 있다. 시인은 위의 시에서 묵시론적默示論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황사'를 생각하였다. 황사가 일상화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헤겔Hegel의 말을 빌면 '객관적 유머'다. 현실과 거리를 두어 아픈 현실을 통과해가는 것이 객관적 유머다. '대 공습', '테러범', '폭발물', '비상벨', '5분대기조 출동' 등이 묵시론적 분위기를 이끈다.

숲과 초원은 지구의 허파이다. 지구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보존하게 하는 큰 항목이다. '허파'가 파괴된다는 것은 인류뿐만이 아닌, 지구생명체 전부가 파멸된다는 은유다. 지구 허파가 없어진다면 지구 자체가 죽는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에 의한 온실 기체의 증가 또한 지구 전체 차원에서의 자발적 보존능력을 떨어뜨린다. 다니엘 퀴Daniel Quinn은 그의 저서 <고릴라 이스마엘Ishmael>에서 이타적 행위가 중단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들의 특권'이다. 인간은 '역할 맡은 자takers'의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지구에 역할 맡은 자와 '역할 맡지 않은 자leavers'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연중심주의 즉, 생명을 생명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다. 🌱

조경관련법규 Q&A



김철홍 (사)한국조경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2. 사업구분

유형별 사업		세부내용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일반		·사업비 : 선도지구 80억 원 이하, 일반지구 6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공동문화복지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창조적마을 만들기	중규모	경제(체험소득)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 소득사업은 2억 원 이하 사업비 지원 / 자부담:시설비의 20%
		환경(경관생태)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마을종합	·사업비 : 1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권역종합	·사업비 : 4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신규마을	·사업비 : 국비70%, 지방비30% - 신규 마을 : 20~50호일 경우 40백만 원/호 50호 초과일 경우 35백만 원/호이며 36억 원이내 - 소규모마을 : 5~19호 30백만 원/호(공공기관 주도형에 한함)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지구선정부터 기반공사완료)
사군역량	사군역량강화	사군창의	·사업비 : 2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사업비 : 50백만 원, 100백만 원, 150백만 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기 제출된 사군역량강화계획서 기준) ·사업기간 : 1년

3.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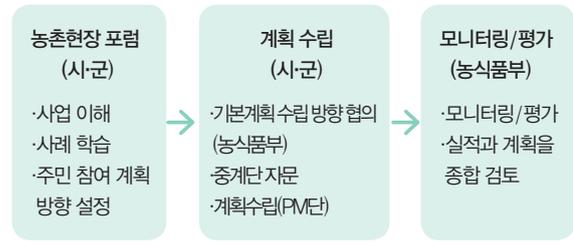
대상	지역
선도지구	시·군내 1,2계층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으로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가능지역
일반지구	시·군내 1,2계층 이외 읍면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중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일반지구는 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 절차 >



< 기본계획단계 현장포럼(안) >

※ 사: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후 사:도 보고)

5. 사업 주체별 역할(선도지구)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선정 · 선도지구 사업 총괄 기획·조정	기획·총괄, 사업선정 국비지원, 기본계획 검토·조정
중앙계획지원단	· 기본계획 수립·검토 지원 / PM단 자문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자문, 평가,모니터링,현장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중앙계획지원단의 실무 지원 및 자문 농어촌연구원: 사업 모니터링 지원·분석(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 PM단	· 사:도 :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 사:도 : 시행계획 검토·보고	지방비 지원,행정지원, 세부사업 시행
	· 사:군 : 지방비 지원 및 행정 지원 - 농촌중심지 TF 구성, 추진	
	· 기본·시행계획(안) 수립, S/W 예산집행 및 사업 운영·관리 (주민대표, PM단)	세부사업 기획·시행
	·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역량강화 사업 시행 등	

※일반지구의 경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주체별 역할 참조

Q&A코너: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100호 설문조사

5.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조경사회보 2016 봄호 제100호 특집으로 '조경인이 바라본 조경사회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으로 작성해 주신 문항만을 발췌하여 제18대 회장단·위원장단의 솔직담백한 답변을 담고자 한다. 좁은 지면상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순 없겠으나, 조경인의 공감과 소통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Q A

강수완

저와 같이 조경이라는 분야를 시작하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조경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활동에 대해 궁금하고, 조경사회에 어떤 다양한 조경분야의 사람들이 속해있는지 궁금합니다.

본회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건설 및 조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조경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물론 설계, 시공, 자재, 감리 등 조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이면 모두 본회의 회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회는 조경계의 권익과 조경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사)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앞으로 10년, 20년 멀게 50년 뒤의 우리나라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의 조경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기후변화에 대처한 설계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해수면과 기온, 점점 북상하는 난대림벨트, 과연 50년 후 남산의 소나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앞으로 요구 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의 조경은 보여주기 위한 조경 즉, 박제된 공간 설계보다는 즐겁고 공감하면서도 경제적인 조경이 더욱 공감 받고 요구될 것입니다.

Q A

김시인

정체된 경제로 인해 위축된 조경분야에 힘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장들이 직장을 잃게 됨에 따라 가정이 해체된 아픈 경험 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대처는 흠여지는 것보다 뭉쳐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 히도 우리 조경계에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조경지원센터입니 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조경계의 일거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터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조경인들이 잘 모르는 듯합니다. 이번 기회를 조경계가 하 나가 됨으로써 위축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배선희

오겡끼데스까!
조경은 안녕하십니까?
조경인은 안녕하십니까?

조경은 경제불황과 건설업의 축소때따라 아주 암울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 나 긴 안목에서는 건설중심에서 환경중심의 수요로 가기 때문에 조경은 안녕합니다! 조경 발주. 설계. 시공. 자재 등에 종사하는 조경인은 불황의 터널에서 숨죽여 인내하 는 모양새입니다. 대량 감원과 회사의 축소 등에서 고투하는 조경인은 현재 안녕하지 않습니다.

윤종면

조경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 제일 우선순위를 들 수 있는 다섯가지

조경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경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조경지원센터(가칭)를 빨리 만들어서 조경전체를 아우 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2. 법적, 제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분야(건축, 토목, 산림, 원예 등)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역할
3. (사)한국조경사회의 역할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하여 많은 회원(사)들이 자발적 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4.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많은 단체인 본회가 선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5. 실무교육, 우수사례답사, 도서발간 업무 등 조경분야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고부가가 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역할

이문석

해외 조경사회와의 교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싱가포르 조경사회쪽과 접촉하여 시공사례지 답사 및 교류를 기획했지만 회원 들의 참여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추진하여 점차 교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리영

조경시설물 회사의 명단이 궁금해요. 밴드가입 할 수 있나요

1. 본회는 매년 4회 발행하는 조경사회보를 통해, 기업회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원사의 간략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업체정보를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김리영님을 밴드에 초대합니다. 본회는 밴드운영을 통해 조경인들의 SNS 소통의 장 으로서 원활한 대화와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랍니다.

이무열

조경사회 회원으로 가입이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권리)에 의거해, 회원가입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의 권리와 제3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 중 개인회원에 한한다.

1. 본회의 제5조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회의 임원 및 소속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홈페이지(www.ksla.or.kr) 공지사항에, 회원가입특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습니다. 방문하시어, 회원혜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영태

공사수주액 감소로 조경분야가 최악 상태인데 임직원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국가의 기반마련이라는 명제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조경분야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건설의 호황에 편승하다보니 스스로 분야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에 비교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따라 한해의 농사가 좌우되는 천수답식 조경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누구나 풍요롭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을것임을 모든 조경인들이 잘 알기에 더욱 무겁고 암담하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관개식 조경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분야를 세분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분야임을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우리사회가 점점 심각하게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SOC사업이 거의 완료된 한국사회에서 또다른 분야로의 진출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주택공급률까지 포화상태에 와있는 시점에서 건설분야-조경에서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설'로 활성화된 성장동력, 정권마다 반복하여 사용했던 경기부양책이요, 그 결과는 전국토의 아파트단지화, 전국토의 공원화, 1일생활권화 등등 긍정 부정의 면이 공존하고 있지만 당장 졸업생들과 현직 종사자들의 일자리 찾기가 급박한 현실부터 해결책 찾기가 난감하죠. 타분야에서의 업역 찬탈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커녕 밥술가락 찾기 급급한 업계현실..... 지금이라도 타분야로의 업역확대를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의료/복지비 예산이 벌써 예산의 1/3이상입니다. 다양한 복지분야로의 진출을 꾀함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토목 기계분야보다는 좀더 복지 웰빙 이런 트렌드에 '조경'이 가깝지 않을까요? 저물어가는 건설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김승아

기업회원가입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 제2장 제6조(회원)에 의거해, 회원가입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회원) ① 본회의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정대현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1. 개인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 2. 기업회원 : 조경사업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 ②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 1. 준회원 : 조경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2. 명예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문화 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익명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방법/절차는,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회원가입안내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회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 클릭
- 2) 정관 동의하기
- 3) 개인/기업회원 양식지 작성후,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
- 4) 회비납부

본회소식

2016 신기술 신자재 세미나

- 일시: 2016년 4월 22일(금), 14:00~17:00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자재 개발위원회
- 참석인원: 약 152명
- 후원: 라펜트, (주)한국조경신문, 월간 환경과조경, 한국건설신문
- 내용: 조경 정원시설물 및 조경 신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조경인들에게는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2016 신기술·신자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신제품(은원솔라사인), 디자인파크개발의 신제품 브랜드 전략(쥬디자인파크 개발), 거푸집 일체형 케이지와 철근숏크리트 인공암을 활용한 자연경관 조성기술(명산), 보행자 중심 보차도 블록과 경관 향상을 위한 옹벽 solution(쥬이노블록) 등 각 참가업체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으며 본회 회원을 포함한 발주처의 높은 참석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탄2신도시 근린공원 7호 공공정원(작가정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일시: 2016년 5월 30일(월) 10:30~
- 장소: 화성시청 접견실
- 협약단체: 화성시, NH공사, (사)한국조경사회
- 협약내용: 1) 대상지역에 대중성, 작품성 높은 10개의 작가정원과 수경시설, 운동시설 등 조성
2) 새로운 공원융합형 정원 모델을 제시하는 테마 정원 및 작가 정원 조성



2016 조경시공사례지답사

-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10:00~17:00
- 장소: 인천 영종도 해변공원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시공위원회
- 참여인원: 68명
- 협찬: (주)건림원, (주)키그린, (주)일진글로벌, (주)멜리오유니온랜드, 미주강화(주)
- 내용: 매년 조경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조경설계, 시공사례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본회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공원관리사업소 등에서 대거 참여했으며, 내인천지역본부 조학제 부장의 발주처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영종진공원, 하늘구름광장, 한가락공원, 송산공원, 수변공원 등을 답사하였다.



제5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일시: 2016년 5월 25일(수)
- 장소: 이천 마이다스C.C.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사)한국조경사회 여성위원회
- 참가인원: 8개팀, 39명(2부 행사 참여자 5명 포함)
- 협찬: 명산(김득수), 변금옥(주도화), 백정희(주예건), 백주영(랜데코 GEI), 안계동(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유선희((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주세민조경), 이재환(미주강화주), 정필순(아톰), 조백일(주공간세라믹), 조용호(주원앤티에스), 최일홍(주디자인파크개발), 황용득((사)한국조경사회 회장/동인조경마당), 한영미(주이노블록)
- 내용: 여성조경인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연 1회 '여성조경인 골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남성게스트 11명이 참여하여 응원해주었다. 제5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의 우승트로피는 (주)라인조경설계사무소의 윤수희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2016 사목회

- 장소: 뉴서울C.C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사목회

구분	214회 사목회	215회 사목회	216회 사목회
일시	2016년 4월 28일(목), 13:00~	2016년 5월 26일(목), 13:00~	2016년 6월 23일(목), 13:00~
참석	4팀 16명	4팀 16명	4팀 16명

지회소식

부산시회

2016 부산 조경가이드북 배부

내용: 미니 조경가이드북(조경단가표와 품셈 수록) 500부를 제작하여, 회원 및 회원사와 조경직공무원에 배부

부산시회골프동호회 '골프동호회장배대회' 개최

- 일자: 2016년 4월 11일(월)
- 장소: 베이사이드C.C

부산시회 골프동호회 '월례회' 개최

- 일자: 2016년 5월 9일(월) / 2016년 6월 13일(월)
- 장소: 베이사이드C.C

'제25회 푸른꿈나무들 한마음 축제' 수상

- 일자: 2016년 5월 21일(토)
- 장소: 금정 스포원 실내체육관
- 주관: 부산아동복지협회
- 내용: 부산시회 홍종양 부회장은 어린이날 기념 부산시장 표창패 포상대상자 선정

희귀야생화 '부산꼬리풀' 증식복원 행사

- 일자: 2016년 6월 21일(화) 10:00~
-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마루
- 주최: 부산시 공원운영과
- 주관: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부산그린트러스트
- 참석: 부산시회 회장단 5명 및 그린트러스트 시민활동가
- 내용: 부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야생화인 부산꼬리풀을 시민공원에 식재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 일시: 2016년 6월 3일(금) 13:30~16:50
- 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주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회
- 주최: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회, (사)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2016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제4회) 개최

- 기간 : 2016년 6월 23일(목)~26일(일) ■ 장소 : BEXCO 제2전시장 1층 ■ 규모 : 120개사/430부스



울산시회

2016년 조경공사설계지침서 교육

-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3:30~17:30
- 장소: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 강사: 박태영, 정명렬

제1회 회장배 골프대회

- 일자: 2016년 4월 26일(화)
- 장소: 울산C.C
- 참석: 24명



울산 녹색도시포럼 전문가 세미나

-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14:00~16:00
- 장소: 보건환경연구원
- 내용: 이상철 회장이 녹색마을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



조경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 일자: 2016년 5월 4일(수)
- 장소: 나무야 나무야
- 내용: 조경수 생산 및 식재 외 5과목을 대상으로 NCS기반으로 한 교재발간(강의용 교재)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14인에게 수료증 전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 일자: 2016년 6월 7일(화)~7월 12일(화)
- 장소: 울산대공원 환경관
- 내용: 울산 생명의 숲과 협의하여 조경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이상철 외 6인) 강의

아음동 장애인집 화단 가꾸기

- 일자: 2016년 6월 21일(화)
- 장소: 아음동 장애인집
- 내용: 건축협회와 협업체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집 입구 화단 조성



제 2회 조경기술인 체육대회

- 일자: 2016년 6월 8일(수) ■ 장소: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 참석인원: 230명

가든디자인 스쿨

- 일자: 매주 목요일
- 장소: 울산시회 사무국/(주)쌔미조경 설계사무실
- 내용: 가든 조성에 대한 스테디와 스케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진행

대구경북시도회

제1회(사)한국조경사회대구경북시도회장배골프대회

- 일시: 2016년 4월 12일(화) 11:00~
- 장소: 구미C.C ■ 참석: 43명

산관학 간담회

-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 장소: 호남정
- 참석: 10명(대구시 환경녹지국, 대구지역교수, 집행부)
- 내용: 제1회 대구광역시 조경녹화포럼 개최 계획 논의

대구지역 건설유관단체장 친선행사 참여

- 일자: 2016년 5월 10일(화) 11:30~ ■ 장소: 영천C.C

제1회 대구시 공원녹지포럼 개최

-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13:30~17:30
-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 주최: 대구광역시, (사)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 주관: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 참석: 각계전문가, 시민참여 등 250여명
- 주제: 친환경 감성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공지사항

1. 2016년 조경공사 적산기준 도서발간(예정)

- 도서명: 2016년도판 조경공사적산기준
- 발간일: 2016년 8월 초 (예정)
- 집필진
 - 1) (사)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장/아이에스엔지니어링 대표 정 운 수
 - 2) (사)한국조경사회 상임이사/(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김 영 옥
 - 3) (사)한국조경사회 기술교육위원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 이 재 옥
- 발간단체: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한국조경사회
- 구매문의: (주)한국조경신문(02-488-2554)

※ 도서발간시, 조경사회 BAND 및 언론매체광고 등을 통해, 출판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판에 도움을 주신 집필진 및 주요발주처 감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자료제공(무료)

- 제공목적: 조경공사 내역서의 체계화 및 내역서 작성의 편의를 목적
- 제공내용(ver.2016)
 - 1) EBS조경코드표
 - 2) 조경표준일위대가
 - 3) 토목공사원가계산 예비율 적용기준
- 자료다운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위원회>적산위원회 No.8 공지글 참조
- 주관/제공처: (사)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회

3. 제26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10:00~18:00
-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체육복지위원회

※ 단체 및 기업행사 계획 시 사전일정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제13회 조경기술세미나

-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13:30~17:30
- 장소: 가든파이브 WORKS관 컨벤션홀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기획홍보위원회, 도서발간위원회, 전시포럼위원회

※ 금번 조경기술세미나는 “농촌과 조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협찬을 희망하시는 회원(사)님께서는 (사)한국조경사회 사무국(02-565-171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행사로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단체 및 기업행사 계획 시 사전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보 제작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주신 (주)한국조경신문, 환경과 조경, 라펜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동정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1. 개인회원(2016년4월~6월)

박지환(목포대학교)

이전안내

두하엔터프라이즈(주)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이봉경 [본회 자문위원]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5-4 인수빌딩 7층

전화: 02-414-1051 팩스: 02-414-1056

(주)가나안건설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김찬수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203호(서초동, 갑옥빌딩)

전화: 02-2040-7722 팩스: 02-584-0866

(주)LIVESCAPE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유승중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1길 5(개포동) 2층

전화: 02-579-4995 팩스: 02-579-4496

설계사무소 온

대표: 이상기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2층 Y-2122호

전화: 070-7727-0024 팩스: 02-2157-0442

모자익 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원아 [본회 개인회원]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8번길 18(당정동) 4층

전화: 031-689-5739 팩스: 031-268-1404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정주현 [본회 명예회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38 (야탑동, 성우오피스빌딩) 303호

전화: 031-707-3313 팩스: 0303-3447-1472

※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세요.

회비 내역 및 협찬 현황

2016년 4월~6월 회비내역 및 협찬현황 (2016년 4월 15일 ~ 6월 30일 기준)

구분	납부 내역	
회장단	2015	이강문(LH공사)
	2016	노찬기(㈜건화), 손창섭(키그린㈜), 제상호(㈜천마이앤씨)
자문위원	2015	김영옥(㈜한솔에스앤디), 박인규(SK임업㈜), 조백일(㈜공간세라믹), 조정일(㈜도원도시)
	2016	강완수(대아이앤씨㈜), 김봉년(㈜신성엔지니어링), 김영옥(㈜한솔에스앤디), 김영환(㈜자성조경), 노영일(㈜예건), 박울진(전북대학교), 석영한(㈜서브윈), 이재석(㈜지피가든), 이석래(㈜한국조경자재), 정태건(㈜삼오녹화), 조정일(㈜도원도시)
상임이사	2015	박순남(㈜영일조경)
	2016	문덕영(한국건설관리공사), 박해원(㈜맥디자인), 신천희(장수산업㈜), 윤상준(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 이선화(지호디자인), 이종화(청산종합개발), 이재욱(㈜천일), 정재욱(㈜스페이스톡), 조구상(㈜그린에이드), 조병상(㈜일진글로벌), 최재혁(㈜비오이앤씨), 한명철(데오스웍스), 한태환(데오스웍스)
이사	2015	채 일(㈜수프로)
	2016	김준희(에코빌주식회사), 김수연(㈜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박상원(세양조경㈜), 박인호(한국가로수보호(주)), 박주현(㈜자인), 변규열(양천구청), 황선숙(㈜그린리안)
개인회원	2015	김범희(㈜자인), 노주호(대성아이디), 양경복(현대자인), 이은영(LH공사), 이재영(다영이앤씨)
	2016	이상민(㈜무영CM), 이은영(LH공사), 이정훈(주간삼건축)
	신규	박지환(목포대학교)
기업회원	2015	(주)공간세라믹(조백일), (주)도원도시(조정일), SK임업(박인규), (주)유일종합조경(유오봉)
	2016	(주)그룹이십일(이용훈), 대아이앤씨(강완수), (주)대지개발(이동석), 데오스웍스(한태환), (주)도원도시(조정일), (주)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주)비오이앤씨(최재혁), (주)서브윈(이규홍), (주)수프로(채일), 세양조경(박상원), (주)유일종합조경(유오봉), (주)자인(박주현), 키그린(손창섭), (주)푸름바이오(박현준)
협찬현황	2016	조경사회보 제 100호 전면광고협찬 -(주)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주)가림환경개발(전부영) -명산(김득일)
		조경사회보 제 100호 연합광고협찬 (주)강남조경(김은숙), (주)강산C&C(박종민), (주)계림(이 흥), 그린루트(윤정현), 나무야나무야(유금오), 도담조경(조용우), 동인조경마당(황용득), 명덕조경(이상철), 삼미조경(최윤주), (주)샘조경개발(한일근), 서현개발(박태영), 성삼종합건설(이문석), (주)소담이앤씨, (주)수림개발(장보근), (주)스페이스톡(정재욱), 애림조경(이철홍), 울산조경전문화학원, (주)원앤티에스(이조원), (주)유림조경(김동수), (주)유림조경(오석진), 유명목재산업(지명환), 장수산업(김현옥), (주)정도조경연구소(임영훈), 조경설계사무소빈(정명렬), (주)플레이잼(강노성), (주)하림조경(천해성), (주)한국조경신문(정대현), (주)화신조경(노재신), 한솔기업(박귀비)
협찬현황	2016	2016신기술.신자재세미나 협찬 사은품 - (주)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 수첩 - (주)노블록(한용택) : USB메모리, 쇼핑백
		2016조경시공사레지답사 협찬 - (주)건림원(윤오임) - 키그린(손창섭) 사은품 - (주)멜리오유니온랜드 : 골프용품 미주강화(주) : 스포츠타올 (주)일진글로벌 : 떡, 음료 (주)키그린 : 양말, 수건
협찬현황	2016	제5회 대한민국 여성조경인 골프대회 협찬 - 명산(김득일) 선물찬조 변금옥(주도화), 백정희(주예건), 백주영(랜데코 GEI), 안계동(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이재환(미주강화(주)) 유선희((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주세민조경), , 정필순(아톰), 조백일(주)공간세라믹, 조영호(주)원앤티에스 최일홍(주)디자인파크개발, 황용득((사)한국조경사회 회장/동인조경마당), 한영미(주)이노블록
		특별협찬 - 김은진 사무국 비품협찬 - 최종필(주)KG엔지니어링) : CD플레이어 -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주)) : 의자 - 제상호(주)천마이앤씨) : 모니터

회비금액 - 명예회장/고문 : 연회비 없음, 회장 : 6,000,000원, 부회장/감사 : 1,000,000원, 상임이사 : 200,000원, 이사/기술위원 : 150,000원
 자문위원 : 100,000원, 정회원(개인회원) : 50,000원, 정회원(기업회원) : 300,000원
 납부방법 - 하나은행 164-910042-86704,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예금주: (사)한국조경사회 (계좌이체시 회원가입 성명과 입금 성명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모든 업무와 활동을 회비 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사)님께서서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편집후기 Afterwords

- 한 민족이 온전한 국가를 이루어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신^{精神}과 물질^{物質}이 필수불가결이다. 민족에 있어 정신은 '혼^魂'이요, 물질은 '영토^{領土}'다. 혼이 있으되 영토가 없는 민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며, 영토는 있으나 혼이 없는 민족은 국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하거나 중국에는 타민족에게 영토를 잃기도 한다.
 '민족'을 '조경'으로 치환하면 혼은 '생태'가 되고 영토는 '정원'이 된다. 조경이 생태를 내주면, 정원을 내주면 무엇이 남을까. 혼이 없는 조경, 영토 없는 조경이 지속가능하다고 믿는가?
 2016년 여름, 유난히 불쾌지수가 높다. -Bummy
- “야호! 두번 남았다!” -올이아빠
- 아침 출근길 석촌호수를 걷다보면, 매미 떼창 소리가 소란스럽다.
 관스레 용기를 낸다. 하지만 소심하게.
 나도 한번 소리를 질러 내 본다. 매--에--매--엠--
 멧쩍은 듯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고는, 괜히 씨익 웃는다.
 그리곤 생각한다.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야지'
 오늘 아침 왠지 기분이 좋다.
 한 목소리가 필요한 지금, 우리 떼창 한번 하실까요? -जू
- 이번 101호 특집은 아쉽게 가보지 못했던 해외 각국의 정원관련 행사를 엿볼 수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중의 관심과 그 파급효과는 어마하다.
 쇼미더가든, K가든스타, 슈퍼가드너K 숨은 조경의 재능이 빛을 내는 순간을 꿈꾼다. -Ariel

조경사 회보 원고(제안) 및 광고(협찬) 모집

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계절마다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조경사 회보가 조경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매체로써
 회보에 담고자하는 콘텐츠에 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집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통해 보다 양질의 회보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경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 관련 제안 :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 먼저 전화 문의를 주신 후 분량 등의 협의를 거쳐 게재 때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광고(협찬) : A4 사이즈의 전면 광고로 1회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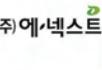
문의

(사)한국조경사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40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T 02.565.1712 F 02.565.1713 E ksla@chol.com H www.ksla.or.kr

기업회원사

 가가조경(주) 대표이사 : 이승훈 gagala@empal.com Tel. 031-907-6877 Fax. 031-907-8833	 (주)가나안건설 대표이사 : 김진수 cna1667@gmail.com Tel. 02-2040-7722 Fax. 02-584-0866	 (주)가림환경개발 대표이사 : 진부영 biogro@hanmail.net Tel. 02-2653-3338 Fax. 02-2065-9437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안세현 gaone@chol.com Tel. 02-501-2555 Fax. 02-501-1742	 가원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김해순 landgreen114@hanmail.net Tel. 031-205-2382 Fax. 031-239-7621
 (주)강천 대표이사 : 여희순 da4882@hanmail.net Tel. 062-574-4881 Fax. 062-574-4883	 거삼조경(주) 대표이사 : 예중서 geasam@chol.com Tel. 02-482-1522 Fax. 02-482-1526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진양교 ca03@chol.com Tel. 02-543-4454 Fax. 02-543-4450	 (주)건림원 대표이사 : 윤오임 kj8160@chol.com Tel. 02-542-8160 Fax. 0505-300-8160	 경관제적소 외연 대표이사 : 장주현 jakaj1472@hanmail.net Tel. 031-707-3313 Fax. 0303-3447-1472
 경원조경(주) 대표이사 : 정현호 kw4068@hanmail.net Tel. 031-921-4066 Fax. 031-921-4966	 경일산업(주) 대표이사 : 김승모 admin@kyungil.com Tel. 02-2648-8000 Fax. 02-2648-3763	 주식회사 세주 대표이사 : 김강선 saeju0969@naver.com Tel. 031-8021-0670 Fax. 031-8021-0672	 (주)LF네트웍스 고려조경 대표이사 : 김유일 coryo@korea.com Tel. 02-783-8342 Fax. 02-786-1369	 계림플리콘 대표이사 : 민병윤 polycon@polycon.co.kr Tel. 02-573-3885 Fax. 02-574-5649
 계림조경(주) 대표이사 : 김충일 keilmia@chol.com Tel. 02-597-5023 Fax. 02-597-5028	 점토(바닥)백돌 (주)공간세라믹 최창 : 조백일 gonggan1@chollian.net Tel. 02-569-2800 Fax. 02-569-0039	 광진산업 대표이사 : 김영기 hys0440@hanmail.net Tel. 053-857-9443 Fax. 053-857-9445	 그린조경 대표이사 : 박종철 landgreen114@hanmail.net Tel. 031-234-5476 Fax. 031-239-7621	 (주)그룹·한 대표이사 : 박명권 groupphan@groupphan.com Tel. 02-521-1122 Fax. 02-521-9858
 (주)그룹21 대표이사 : 이윤홍 groc21@chollian.net Tel. 02-588-2021 Fax. 02-588-2024	 (주)금강아트웍스 대표이사 : 전종열 artfence@chol.com Tel. 033-745-8373 Fax. 033-745-8378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주) 대표이사 : 황영득 kidaneng@hanmail.net Tel. 051-514-0413 Fax. 051-514-0417	 기술사무소 통인조경마당 대표이사 : 황영득 madang96@chollian.net Tel. 02-2202-0293 Fax. 02-2202-0294	 (주)기술사무소아텍플러스 대표이사 : 안상철 artec99@chol.com Tel. 02-567-0841 Fax. 02-567-0842
 JEONG JIN Green & Hoppyworld 정진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김창희 jeongjinco@hanmail.net Tel. 044-868-7695 Fax. 044-868-7696	 기술사무소 예당 대표이사 : 오두환 yedanga@chol.com Tel. 02-6242-3537 Fax. 02-6242-3540	 (주)기술사무소 LET 대표이사 : 이종수 letlet@chol.com Tel. 02-424-7182 Fax. 02-424-7175	 김종해조경설계(주) 대표이사 : 김종해 kjh9067@chol.com Tel. 031-704-8051 Fax. 031-709-8053	 꽃그린 대표이사 : 김영분 flori@hanmail.net Tel. 031-632-5588 Fax. 031-633-9044
 나루의소망 대표이사 : 김대수 naru06@chol.com Tel. 031-592-4978 Fax. 031-592-9984	 (주)나루 대표이사 : 최상돈 naru06@chol.com Tel. 02-2051-4155 Fax. 02-2051-4157	 뉴웨이브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이용현 newwave@newwave-tech.co.kr Tel. 032-661-0077 Fax. 032-661-0079	 (주)다우리디자인그룹 대표이사 : 위영준 dawoor@chol.com Tel. 02-575-4508 Fax. 0303-3440-4507	 (주)대상이아이디 대표이사 : 노주호 dsid@dreamwiz.com Tel. 053-765-2223 Fax. 053-761-7908
 DAE-A 대아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강영수 daea1211@hanmail.net Tel. 051-853-7700 Fax. 051-852-3399	 (주)대지개발 대표이사 : 이동석 daej@illesoil.co.kr Tel. 02-832-3500 Fax. 02-844-6012	 DEOSWORKS 대표이사 : 한태환 deosworks@chol.com Tel. 032-431-3444 Fax. 02-862-3449	 (주)도광 대표이사 : 정성미 21mirim@naver.com Tel. 032-431-0548 Fax. 032-431-0549	 (주)도원도시 대표이사 : 조정일 downcity@chol.com Tel. 02-448-8855 Fax. 02-448-1076
 동림산업 대표이사 : 김성무 lovyy@korea.com Tel. 02-585-1119 Fax. 031-721-3873	 동림가공품 종합건설사무소 조경부 대표이사 : 전영수 june1127@naver.com Tel. 02-6211-7712 Fax. 02-926-7582	 (주)동심원 대표이사 : 안계동 dsw96@chol.com Tel. 02-544-5674 Fax. 02-544-5697	 동아에스텍(주) 대표이사 : 한성원 dast@dast.co.kr Tel. 031-777-8321 Fax. 031-777-8325	 동양위터테크 대표이사: 장경천 fountain@chol.com Tel. 02-486-4900 Fax. 031-211-1517
 (주)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 김수보 psch@dongileng.co.kr Tel. 02-2152-2160 Fax. 02-2152-2189	 두화엔터프라이즈(주) 대표이사 : 이봉경 duha3@chol.com Tel. 02-414-1051 Fax. 02-414-1056	 (주)디자인가고 대표이사 : 김태용 gagyo329@chol.com Tel. 02-564-3680 Fax. 02-568-4372	 (주)디자인파크개발 대표이사 : 김요섭 dp566@hanmail.net Tel. 02-2665-6006 Fax. 02-706-9773	 (주)둘과솔 대표이사 : 권준희 gogang83@korea.com Tel. 02-451-7579 Fax. 02-6258-7579
 (주)라모디자인그룹 대표이사 : 이승훈/오재준 lamo@lamo.co.kr Tel. 031-709-6614 Fax. 031-709-6612	 (주)라이브스케이프 대표이사 : 유승중 siyoo@livescape.co.kr Tel. 02-579-4995 Fax. 02-2680-2015	 (주)라인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윤수희 line2297@chol.com Tel. 02-557-5031 Fax. 02-557-6629	 라펜트(주) 대표이사 : 이휘영 lafent@lafent.com Tel. 031-932-3122 Fax. 031-902-3129	 레인보우스케이프(주) 대표이사 : 정은인 ceo@rainbowscape.com Tel. 031-768-1891 Fax. 031-768-1894
 (주)맥디자인 대표이사 : 박해원 mac0570@chol.com Tel. 031-997-0454 Fax. 031-997-0456	 (주)멜리오유니온랜드 대표이사 : 황선주 seoul@unionland.com Tel. 052-277-4200 Fax. 052-265-7227	 명산 대표이사 : 김득일 ms0415@chol.com Tel. 02-445-8992 Fax. 02-445-8993	 명일조경 대표이사 : 이혜상 201loveyou@naver.com Tel. 02-481-1850 Fax. 02-481-1853	 (주)목우환경디자인 대표이사 : 임미란 mkwoos92@chol.com Tel. 02-501-0206 Fax. 02-501-0380
 (주)미도랜드 대표이사 : 이무성 mslee@midoland.com Tel. 02-536-1348 Fax. 031-434-0925	 미성조경자재 대표이사 : 정종민 emijae@emija.com Tel. 1566-5406 Fax. 031-968-2699	 미주강화주식회사 대표이사 : 윤복모 mijun33@chol.com Tel. 02-475-1736 Fax. 02-472-1098	 방림이엘씨(주) 대표이사 : 김재준 banglimcorp@hanmail.net Tel. 02-572-4401 Fax. 02-572-4415	 (주)밤빌조경개발 대표이사 : 김승환 b582@chol.com Tel. 02-532-7417 Fax. 02-532-8425
 백상엘앤씨(주) 대표이사 : 조현재 bsland@unitel.co.kr Tel. 031-985-5900 Fax. 031-782-5902	 북한산조경개발 대표이사 : 문기수 mks5775@naver.com Tel. 031-965-2335 Fax. 031-964-8523	 비앤지(주) 대표이사:이병렬 bg21@chol.com Tel. 031-761-5313 Fax. 031-766-5314	 비에프현우암(주) 대표이사 : 이민호 alpha0820@hotmail.com Tel. 031-851-3067 Fax. 031-853-3067	 (주)비오이엘씨 대표이사 : 최재혁 beoheno@korea.com Tel. 02-425-4954 Fax. 02-425-4943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 최치훈 santwebmaster@samulsan.com Tel. 02-2145-2114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한종률 jinshe@hanmail.net Tel. 02-3400-3114 Fax. 02-3400-3584	 삼울엘앤씨(주) 대표이사 : 정복현 shls93@chol.com Tel. 032-425-7007 Fax. 032-425-7008	 상록건설(주) 대표이사 : 김창환 ss4572@srconst.com Tel. 032-556-2066 Fax. 032-556-2067	 상록조경(주) 대표이사 : 김주환 saroc@hanmail.net Tel. 041-592-7442 Fax. 041-592-7446
 새한그린 대표이사 : 박광일 saehan2003@empal.com Tel. 02-2138-1000 Fax. 02-2138-1005	 (주)생유엘앤 대표이사 : 이익훈 ih@saem.co.kr Tel. 02-3487-2222 Fax. 02-3487-2332	 서경건설개발(주) 대표이사 : 오성균 land02@hanmail.net Tel. 02-501-9140 Fax. 02-501-9259	 (주)서브원 대표이사 : 이규홍 kong1007@serveone.co.kr Tel. 031-8026-6674 Fax. 031-8026-6611	 서인알앤디조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신현돈 shinhyeondor@korea.com Tel. 02-576-5171 Fax. 02-3463-7009
 (주)서울나무병원 대표이사 : 이승재 kg7701@hite.net Tel. 031-889-9119 Fax. 031-889-8080	 서인조경(주) 대표이사 : 박영준 seoinn@chol.com Tel. 02-563-5088 Fax. 02-563-5087	 (주)서호에코블 대표이사 : 서성정 seohoblock@hanmail.net Tel. 02-547-4136~7 Fax. 02-547-4134	 (주)선현재·이영 종합건설사무소 대표이사 : 유상진 huheun@sunjin.co.kr Tel. 02-2670-5659 Fax. 02-2670-5658	 승우하이테크 대표이사 : 박재진 4736000@naver.com Tel. 02-473-6000 Fax. 02-479-4433

기업회원사

 성주위터피어건설 대표이사: 이은식 sumju97@korea.com Tel. 02-2060-7595 Fax. 02-2060-7597	 (주)성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유크 lascape@chol.com Tel. 02-3400-6800 Fax. 02-3480-6810	 세양조경건설(주) 대표이사: 심영삼 selima@chol.com Tel. 02-577-2231 Fax. 02-577-6897	 세양조경(주) 대표이사: 박재원 seyang@chol.com Tel. 031-275-3561~3 Fax. 031-275-3564	 Sein (주)세인환경디자인 대표이사: 박건형 seined@naver.com Tel. 02-877-8895 Fax. 02-877-8812
 (주)송림원 대표이사: 임상규 treeyim@hanmail.net Tel. 02-586-0025 Fax. 02-581-5225	 (주)수프로 대표이사: 채일 ceo@yahoo.co.kr Tel. 02-578-4532 Fax. 02-6008-2453	 수하미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희 4300921@naver.com Tel. 02-430-0923 Fax. 02-430-0925	 (주)스페이스톡 대표이사: 정재욱 master@spacetalk.co.kr Tel. 02-525-3274 Fax. 02-525-3276	 (주)스페이스픽 대표이사: 박순자 spc6214@hanmail.net Tel. 051-805-0041 Fax. 051-867-6215
 sunplus 송진조경(주) 대표이사: 권원제 splus2010@naver.com Tel. 031-389-8601 Fax. 02-543-6698	 SINRIM 신림산업(주) 대표이사: 방승준 sinrim23@hanmail.net Tel. 031-389-8890~1 Fax. 031-389-8892	 SHINSUNG 신성종합조경(주) 대표이사: 최호영 ssl2000@hanmail.net Tel. 02-2052-7194 Fax. 02-2052-7011	 SW SW WOO ENG CO., LTD. (주)신우이엔지 대표이사: 김순하 sinwlighting@naver.com Tel. 033-661-3099 Fax. 033-662-3099	 SYNHA (주)신화건설 대표이사: 최원만 synwha@chol.com Tel. 02-545-5903 Fax. 02-549-5905
 c-topos Design (주)씨토포스 대표이사: 최선현 ctopos@chol.com Tel. 02-553-0808 Fax. 02-553-8440	 ASSUM Assum Ecological Systems INC. 아섬 대표이사: 권오병 assum@assum.co.kr Tel. 02-502-0724 Fax. 02-502-0725	 HDC 아이서비스 아이서비스(주) 대표이사: 김중수 minipark@unitel.co.kr Tel. 02-2008-8581 Fax. 02-2008-8880	 AQUAtech 한국수목재 연구회 (주)아쿠아테크코리아 대표이사: 장진수 aquatech@unitel.co.kr Tel. 031-471-4756 Fax. 031-471-4770	 Ahn's Design 한국수목재 연구회 안스디자인 대표이사: 안영애 ad003@chol.com Tel. 02-3448-5677 Fax. 02-3448-5676
 (주)에넥스트 대표이사: 신복순 enext2002@hanmail.net Tel. 1544-9611 Fax. 051-920-2744	 HSC (주)에버그린필드 대표이사: 이호영 hysc440@hanmail.net Tel. 053-744-0440 Fax. 053-793-0444	 에스페이스조경 대표이사: 정미숙 espace7@emal.com Tel. 032-761-1758 Fax. 02-483-1758	 SW green SW도로안전 대표이사: 신희수 sin0293@hanmail.net Tel. 032-761-0336 Fax. 032-761-0357	 SH SH공사 대표이사: 변창홍 khaklee@sh.co.kr Tel. 02-3410-7535 Fax. 02-3410-7584
 SK 임업 대표이사: 이성윤 Tel. 02-3410-7535 Fax. 02-3700-2809	 에코아트조경(주) 대표이사: 정인영 dongwool088@naver.com Tel. 02-2267-1088 Fax. 02-2279-1600	 Eco&Bio 에코엔바이오(주) 대표이사: 장성원 edla@econbio.com Tel. 031-595-9260 Fax. 031-595-9263	 ECOTON+U (주)에코톤 대표이사: 송병연 kangsh@ecotonu.com Tel. 070-8808-5499 Fax. 031-713-0629	 ECOSTYLE (주)에코스타일 대표이사: 맹시호 ecostyle1@naver.co.kr Tel. 041-885-9001 Fax. 041-885-9003
 FC (주)에프씨코리아랜드 대표이사: 성세경 fc4u@hanmail.net Tel. 02-3141-1174 Fax. 02-3141-1175	 NE (주)엔쓰컴퍼니 대표이사: 허수경 nih.chargepole@gmail.com Tel. 02-583-1713 Fax. 02-523-3039	 나무샘 (주)엔엘에스 대표이사: 신선숙 sss4875@naver.com Tel. 043-882-3933 Fax. 0505-115-3933	 L GREEN (주)엘그린 대표이사: 이성호 lgreen@naver.com Tel. 02-572-8643 Fax. 02-572-1149	 LG 하우시스 LG하우시스 대표이사: 오장수 sdaesim@lghusys.com Tel. 02-3773-7897 Fax. 02-3773-7598
 (주)에이치엔씨 대표이사: 김형수 hllteww@naver.com Tel. 031-675-6018 Fax. 031-675-6019	 에이치엔씨 에이치엔씨 대표이사: 이종희 yullmae@hanmail.net Tel. 02-502-0508 Fax. 02-503-0629	 OUNGLIM 영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함운근 yllat1994@chol.com Tel. 02-960-1981 Fax. 02-967-9725	 YEKUN (주)예건 대표이사: 노영일 yekun@chol.com Tel. 031-943-6114 Fax. 031-943-6698	 YESONE (주)예원&포아이가든 대표이사: 최봉길 yesone9@naver.com Tel. 02-574-8387 Fax. 02-574-8388
 (주)에이치엔씨 대표이사: 변민기 evodia@olec.com Tel. 051-816-6773 Fax. 051-816-8245	 ONU (주)온유조경 대표이사: 김정식 onuland@naver.com Tel. 02-578-4410 Fax. 02-578-4471	 온유조경 대표이사: 서동진 onjoc5450864@hanmail.net Tel. 041-545-0864 Fax. 041-544-0864	 온유조경 대표이사: 최성근 rodem299@naver.com Tel. 031-321-0044 Fax. 031-321-0202	 우원조경건설(주) 대표이사: 주영수 woo-94@hanmail.net Tel. 031-266-6801 Fax. 031-575-6840
 우인아이씨 대표이사: 류근환 wooincon@naver.com Tel. 032-462-3300 Fax. 0303-3130-3306	 원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성진 cjin0413@hanmail.net Tel. 02-418-2428 Fax. 070-4015-3114	 원석조경건축(주) 대표이사: 고연표 syp@wonsuk.co.kr Tel. 031-708-8644 Fax. 031-713-3924	 WON+TS (주)원엔티에스 대표이사: 이조원 wonnts@hanmail.net Tel. 02-338-2882 Fax. 02-338-7890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은성 yurimla@chol.com Tel. 02-579-4815 Fax. 02-579-4817
 YUIL cons. (주)유일종합조경 대표이사: 노오봉 uiland@naver.com Tel. 02-591-3597 Fax. 02-591-6304	 YUIL cons. 유일종합조경(주) 대표이사: 육경주 yslandscape@chol.com Tel. 02-579-0345 Fax. 02-579-0347	 YOOK TIM 육임조경(주) 대표이사: 육경준 iyookim@hanrim.com Tel. 02-502-6226 Fax. 02-503-6595	 E-K GREENPOL (주)은강조경산업 대표이사: 서해석 ekland2002@hanmail.net Tel. 02-412-7146 Fax. 02-412-7147	 은강조경 대표이사: 홍재실 hjs20c@hanmail.net Tel. 02-577-7260 Fax. 02-579-7888
 EAGON <small>이건환경</small> (주)이건환경 대표이사: 박승준 gland@eagon.com Tel. 031-999-3830 Fax. 031-987-9150	 IND BLOCK (주)이노블록 대표이사: 한용택 hany49@hanmail.net Tel. 031-358-4711 Fax. 031-358-4714	 FLAND 이랜드체육산업(주) 대표이사: 조석현 eland21c@naver.com Tel. 032-564-7681 Fax. 032-564-7684	 이산 대표이사: 이원찬 la@nwks.co.kr Tel. 031-389-0286 Fax. 031-389-0298	 이영해화학연구소 대표이사: 이영해 flodeco@hanmail.net Tel. 031-637-5498 Fax. 031-637-5498
 E-WOOD 이우드코리아 대표이사: 이근식 ikunsig@hanmail.net Tel. 02-446-0347 Fax. 02-446-0361	 EWOOD Environmental Design Co., Ltd.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진승범 ewoosend@naver.com Tel. 02-425-3024 Fax. 02-425-3035	 이엔테크 대표이사: 김재훈 rubbermat55@naver.com Tel. 031-989-6142 Fax. 031-989-6144	 ILYOUNG 일영산업 대표이사: 박왕진 tree7410@naver.com Tel. 02-2213-0924 Fax. 02-2213-5445	 임광 임광조경(주) 대표이사: 임성광 limkwang0817@hanmail.net Tel. 02-573-3042 Fax. 02-529-7864
 임병울컴퍼니 대표이사: 임병울 admin@eulcom.net Tel. 032-266-3210 Fax. 032-266-3219	 이엔씨 (주)자연과학 대표이사: 정대열 hawky@nate.com Tel. 02-557-9951 Fax. 02-557-9830	 자연제주 대표이사: 이석창 jeju2345@bill36524.com Tel. 064-733-2345 Fax. 064-762-2345	 ZAIN 주식회사 자인 대표이사: 박주현 zaingroup@naver.com Tel. 02-6289-5100~1 Fax. 02-6289-5102	 ZAIN (주)잡츠 대표이사: 정우주 jc1200@hanmail.net Tel. 031-796-4841 Fax. 031-796-4842
 J.S 장수산업(주) 대표이사: 김현욱 js0080@chol.com Tel. 031-753-0080 Fax. 031-721-6786	 장우조경(주) 대표이사: 박태욱 jue85@hanmail.net Tel. 02-2252-0815 Fax. 02-2252-0816	 장원조경 대표이사: 신경준 shin2460@hanmail.net Tel. 02-578-4590 Fax. 02-578-4591	 장원조경 대표이사: 김민중 jengli10@nate.com Tel. 043-222-3719 Fax. 043-222-3720	 전원조경 대표이사: 채희용 jwa0364@hanmail.net Tel. 031-592-0364 Fax. 031-592-0365
 JK Landscape (주)정경원 대표이사: 오길현 jklandscape@chol.com Tel. 02-3448-5124 Fax. 02-3448-5128	 정경원 (주)정원조경 대표이사: 정영환 chung9388@hanmail.net Tel. 02-424-8855 Fax. 02-415-2588	 정일예코텍 대표이사: 박희희 jucheil@chol.com Tel. 02-3463-6856 Fax. 02-3463-6858	 LHYN 조경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 이재연 lhyn@lhyn.com Tel. 02-516-4222 Fax. 02-516-4297	 조경사엔씨 대표이사: 김성찬 kscj@hanmail.net Tel. 031-889-6710 Fax. 031-889-6106
 Beyond (주)조경설계 비욘드 대표이사: 노환기 beyond1@chol.com Tel. 02-2202-2050 Fax. 02-2202-0597	 STL (주)조경설계 서안 대표이사: 정영선 satla@chol.com Tel. 02-579-7008 Fax. 02-576-7009	 join (주)조인조경 대표이사: 김영일 joinland@joinlands.co.kr Tel. 031-544-4414 Fax. 031-544-4415	 조인조경 대표이사: 이상진 gola1999@chol.com Tel. 02-501-0935 Fax. 02-501-0959	 Jin 진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홍준 jinland2@daum.net Tel. 02-2628-5680 Fax. 02-2628-5688

기업회원사

 진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종훈 aerolarp@chol.com Tel. 02-561-3020 Fax. 02-561-3044	 진성조경건설 대표이사: 김태웅 escapedavid@empal.com Tel. 031-706-3931 Fax. 031-706-3928	 진성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옥희 sungyeun@naver.com Tel. 031-262-9881 Fax. 031-262-9882	 창대JNC 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홍갑진 cdjnc@chol.com Tel. 02-413-5604 Fax. 02-413-5669	 채우음 조경기술사무소 (주)채우음조경기술사무소 대표이사: 김병채 chaeum@chol.com Tel. 02-423-7611 Fax. 02-423-7613
 (주)천마이앤씨 대표이사: 채상호 cmenc@chol.com Tel. 02-576-1041 Fax. 02-576-1817	 천지조경(주) 대표이사: 장국선 chunjijik@chol.com Tel. 02-388-3707 Fax. 02-388-3710	 철박물관 대표이사: 장인경 chikdwomir@naver.com Tel. 043-883-2321 Fax. 043-883-2322	 (주)청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장대수 skjids@hanmail.net Tel. 051-508-6323 Fax. 051-508-3518	 창우개발 대표이사: 이재홍 cwdc@chungwoo.co.kr Tel. 02-3489-2000 Fax. 02-522-6349
 청원조경(주) 대표이사: 하석일 nofada119@hanmail.net Tel. 031-776-3111~2 Fax. 031-776-3113	 (주)진림종합기술 대표이사: 심창진 land3670@chol.com Tel. 02-406-2987 Fax. 02-406-3670	 (주)케이엘에스 대표이사: 장길균 ksl@ksl.or.kr Tel. 031-434-1038 Fax. 031-434-1039	 코비텍 대표이사: 권우중 gasolsong@hanmail.net Tel. 031-797-6820 Fax. 031-797-6821	 코요롱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순 giotechir@kolon.com Tel. 02-3677-5895 Fax. 02-3677-5903
 콤판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세근 kids@kompokorea.com Tel. 02-3473-9617 Fax. 02-3473-9675	 키그린(주) 대표이사: 손창섭 keygreen@naver.com Tel. 031-548-1199 Fax. 070-8673-8572	 (주)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수웅 rick@pec.ne.kr Tel. 031-420-7804 Fax. 031-420-7810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138186@poscoenc.com Tel. 032-748-2777 Fax. 032-748-4043	 푸른나무조경(주) 대표이사: 이영욱 poorun@hanmail.net Tel. 032-885-9853 Fax. 032-885-9854
 (주)푸름바이오 대표이사: 박현준 purum1@hanmail.net Tel. 031-291-3375 Fax. 031-291-3374	 풍산조경(주) 대표이사: 한순희 poongsan1@hanmail.net Tel. 032-566-4862 Fax. 032-566-4863	 (주)태풍F&G 대표이사: 김수현 thng@naver.com Tel. 02-2611-0810 Fax. 02-2611-0833	 토담환경디자인 대표이사: 김연희 soap2k@naver.com Tel. 031-8001-0017 Fax. 031-281-0105	 트랜스코리아개발(주) 대표이사: 김운식 ykk777@transcorea.com Tel. 02-489-4777 Fax. 02-489-4151
 하нас 대표이사: 한은희 lei0326@naver.com Tel. 02-543-1326 Fax. 031-421-1326	 한국가로수보호(주) 대표이사: 최병섭 accounting@urbansys.co.kr Tel. 02-387-2311 Fax. 02-353-8837	 (주)한국도시녹화 대표이사: 김철민 sp21kcm@hanmail.net Tel. 02-414-1117 Fax. 02-6007-163	 한국론타이(주) 대표이사: 김익영 ronia@korea.com Tel. 02-812-2377 Fax. 02-816-2377	 한국씨씨알(주) 대표이사: 변동원 cor8311@naver.com Tel. 031-781-8311 Fax. 031-708-8411
 한국조경개발(주) 대표이사: 민윤재 hankukla@chol.com Tel. 032-321-9006 Fax. 032-321-0092	 (주)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이사: 전효중 sejunpark@empas.com Tel. 02-541-4654 Fax. 02-2226-4654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firewind@kecc.co.kr Tel. 02-2049-5614 Fax. 02-2049-5097	 한림로텍스(주) 대표이사: 명홍호 lodex@hanmail.net Tel. 02-2203-1566 Fax. 02-3431-5371	 한림에코텍(주) 대표이사: 한성식 ccw815@chol.com Tel. 02-3445-8921 Fax. 031-735-8080
 (주)한림조경기술사무소 대표이사: 김경윤 hanlim@hanlimla.co.kr Tel. 02-564-3311 Fax. 02-564-3314	 한솔그린(주) 대표이사: 한승호 hgreen@chol.com Tel. 02-3411-0898 Fax. 02-3411-0845	 (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김영욱 kyw9382@dreamwiz.com Tel. 031-596-6501 Fax. 031-596-6500	 한림개발(주) 대표이사: 윤우열 hanlicde@chol.com Tel. 031-704-1700 Fax. 031-709-4908	 해오름2000(주) 대표이사: 김문모 k7391225@hanmail.net Tel. 031-286-9895 Fax. 031-286-9838
 주식회사 해오름조경 대표이사: 김충열 cj4009@naver.com Tel. 041-564-3939 Fax. 041-551-9114	 해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한정훈 rabbl2311@hanmail.net Tel. 02-2027-6030~4 Fax. 02-2027-6035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재식, 정몽규 jjryu@hyundai-dvp.com Tel. 02-2008-9558 Fax. 02-2008-9004	 형진조경(주) 대표이사: 강이호 linland@chol.com Tel. 02-592-1545 Fax. 02-592-1662	 (주)형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중호 howon5256@naver.com Tel. 02-2057-5204 Fax. 02-571-5203
 홍디자인 대표이사: 김형수 hong8152@naver.com Tel. 041-577-0307 Fax. 041-577-9047	 (주)환경과조경 대표이사: 박명권 kiam@chol.com Tel. 02-521-4026 Fax. 02-521-4627	 (주)환경디자인아르메 대표이사: 김정수 larie@chol.com Tel. 02-569-7551 Fax. 02-569-7553	 (주)휴대임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영찬, 김진규 wind@hudigm.com Tel. 02-6717-6000 Fax. 02-6717-641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 이재영 sunny@h.or.kr Tel. 031-738-3297 Fax. 031-738-3356

BF 현무암 (주)

BLESSING FLOWERS

<http://현무암.kr>

국내산 현무암 자연석 생산 및 폭포용 천층석 & 석가산용 운남석 직 수입판매



폭포용 천층석



폭포용 천층석



석가산용 운남석



석가산용 운남석



국내산 연천, 철원 현무암 자연석



국내산 연천, 철원 현무암 자연석

BF 현무암 (주)

BLESSING FLOWERS

<http://현무암.kr>

상담전화 : 010.8230.3067

사업자등록번호 614-86-0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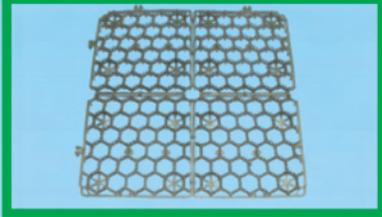
사무실 : 031· 851· 3067

팩 스 : 031· 853· 3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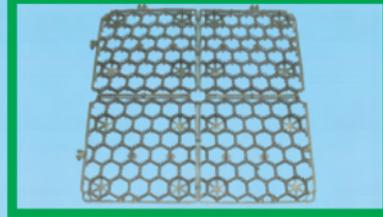
e-mail : hhy0786@hanmail.net

사람들의 잦은 통행으로 잔디 손상이 걱정되십니까?
시그마매트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S-P - 평지용



S-S - 경사지용



◆ 주요 적용 사례

▶ 바람의 언덕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5년 후]

▶ 서울 문학의 집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5년 후]

▶ 서울시청 광장



[촛불집회 직 후]



[시그마매트 설치 3개월 후]

▶ 성산 일출봉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5년 후]

▶ 부산 송상현 광장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3개월 후]

▶ 강서구 방화로



[시그마매트 설치 전]



[시그마매트 설치 3개월 후]

◆ 시공(납품)실적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각 구청, 부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제주도특별자치도, 성남시청, 안산시청, 수원시청, 경주시청, 순천시청,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서부푸른도시사업소,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북서울꿈의 숲, 제주성산일출봉, 남양주시청, 의정부시청, 기장군청, 안양베네스트 외 전국 300여개 골프장



키그린(주)

www.key-green.com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29번길 23-15
T. 031-798-0112 / F. 031-769-5999



조달청
우수제품



국가공인기관
K마크인증



특허7개
실용신안13개



ISO9001
ISO14001



경기유망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